

美 두달여만에 하루 최다 1600명 사망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6만명 10만명당 100명 이상 확진 레드존 18→21개주로 확대 백악관 TF, '봉쇄령 재개 권고'

미국에서 28일(현지시간) 하루 동안 1600명에 달하는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하며 일일 사망자 수가 2개월 반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은 이날 오후 8시 30분 기준으로 일일 사망자를 1592명으로 집계했다. 같은 날 신규 확진자 수는 6만명으로 나타났다.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자체 집계 결과 이날 하루 미국에서 1103명이 숨지며 코로나19 사망자가 이를 연속으로

1000명을 넘겼다고 보도했다.

플로리다·아칸소·오리건·몬태나주에서는 하루 사망자가 모두 최다치를 기록했다. 다만 캘리포니아·플로리다·텍사스·애리조나주 등 미국의 새 확산지에서는 신규 환자 증가가 정점을 넘겼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한때 하루 신규 환자가 7만7000명을 넘겼던 것에 비하면 급속한 확산세가 다소 누그러진 모양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이날 9230명의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추가되며 누적 환자가 44만1977명으로 올라갔다. 또 사망자는 최다인 186명이나 나왔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도 1120명의 신규 환자가 나오면서 총환자가 10만9384명으로 상승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입원 환자가 1244명으로 집계되며 최다를 기록했고, 신규 환자도 1749명 발생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이에 따라 식당들에 대해 오는 31일부터 밤 11시 이후 술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술집은 계속 영

업이 금지된다. 오클라호마주에서도 1089명의 신규 환자가 나오며 사흘 연속으로 1000명을 넘어섰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은 이날 오후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434만7717명, 사망자 수를 14만9180명으로 집계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일명 '레드존'은 20개 주를 넘어섰다. 지난 일주일간 인구 10만명당 평균 100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을 의미한다.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6일 자 보고서에서 미국 내 레드존을 기존 18개주에서 21개주로 확대했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미주리와 노스다코타, 위스콘신 등 3개주가 추가됐다. 코로나19 TF는 레드존 지역에 대해, 경제정상화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사실상 경제봉쇄령을 재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후이성 제방 건설에 동원된 중장비 지난 28일 중국 안후이성 잉상현의 다이자 호수에 인접한 유수지 제방의 수문이 붕괴되자 중장비들이 대거 동원돼 임시 제방을 쌓고 있다. /연합뉴스

중연구진 "황허강 맑아져... 퇴적물 급감 탓"

나무 나이트 정보 통해 500여년간 지표수 양 추정

'누런색 하천'으로 유명한 중국 황허(黃河)가 최근 몇십년 새 맑아졌으며, 이는 지표수와 퇴적물 급감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과학원 지구환경연구소 소속 지리학자 안즈성 등이 이끄는 연구팀은 1492년 이래 황허의 변화를 연구한 논문을 최근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최근의 홍수 상황과는 무관한 것으로, 연구진은 황허유역 나무

의 나이트 정보를 수집해 500여년 동안 매해 황허로 유입된 지표수를 추정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강물의 투명도를 직접 측정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많은 침식이 발생하고 물이 강으로 흘러갔는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최근 몇십년 새 지표수와 퇴적물이 급감했다면서 "500여년간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황허는 전 세계 대기순환과 지역기후 등 자연적 요소의 영향을 받아 수십 년 주기로 강물이 깨끗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곤 했는데, 최근의 현상이 좋은 소식인 것만은 아니라는 게 연구진 설명이다. 1960년대부터 이러한 주기가 약해지기 시작해 최근에는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베트남 다낭발 코로나19 재확산... 교통편 차단 봉쇄 조치

하루 8명 신규 확진 누적 확진 446명으로 증가 인근 광응아이 등으로 확산

베트남 중부 다낭시에서 지난 25일 베트남에서는 100일 만에 처음 발생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자가 닷새째 속출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계속 확산하고 있다. 베트남 보건부는 29일 다낭에서 코로나19에 8명이 새로 감염돼 누적 확진자가 446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모두 다낭 시내 병원 4곳과 관련이 있는 지역사회 감염자로 분류됐다.

당국은 또 전날 저녁 다낭에서 의료진 1명을 포함해 4명이 추가로 감염됐으며 인근 광응아이성에서도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광응아이성 확진자 가운데 2명은 최근 다낭에 있는 병원과 결혼식장을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25일 다낭에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57세 베트남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26~27일 다낭과 인근 광응아이성에서 14명이 잇따라 확진자가 됐다. 이에 따라 최근 5일간 지역사회 감염자는 30명으로 늘어 2차 확산 우려가 제기됐다.

또 지난 12~15일 대규모 가족과 함께 다낭을 여행한 하노이의 20대 피자집 종업원이 기침과 고열 증세를 보인 뒤 코로나19 1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당국이 29일 오전 해당 지역을 봉쇄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봉쇄된 베트남 다낭시의 공중버스가 28일 운행을 멈춘 채 주차돼 있다. 베트남 교통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날 0시부터 15일간 다낭 시내와 다낭을 오가는 대중교통의 통행을 금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8일부터 다낭을 오가는 모든 여객용 교통편을 차단했고, 시내 대중교통 운영을 금지하는 등 봉쇄에 들어갔다.

광남성도 29일부터 가라오케(유흥주점)와 마사지숍, 바 등 오락 시설 운영을 금지하고 호이안 등의 관광지에도 20명 이

상 모이지 않도록 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시 시작했다.

당국은 이번엔 검출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베트남에서 기존에 발견된 것과 달리 해외에서 유입된 변종으로, 전파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나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다낭시에 국내 관광객이

대거 다녀갔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베트남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지난 3월 22일부터 원칙적으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같은 달 25일부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선 여객기 도착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

베이조스 전 부인 2조원 통큰 기부

이혼후 사회운동 큰손 변신 현재 순자산 72조원까지 증식

세계 최고의 부자인 아마존 최고경영자(CEO) 제프 베이조스의 전 배우자인 매켄지 스콧이 이혼 후 받은 합의금 중 17억달러(2조336억원)를 기부했다.

스콧은 28일(현지시간) 온라인 매체 '미디엄'을 통해 인종평등과 경제적 이동성, 성평등, 공중보건, 환경보호 등을 위해 활동하는 116개 시민단체에 이 같은 금액을 쾌척한 사실을 알렸다.

후원받은 시민단체 중에는 인종차별에 맞서는 법률단체인 유색인종위향상협회(NAACP) 법률보호기금(LDF)과 오바마재단, 조지 W. 부시 대통령센터, 성폭행·학대·근친상간 전국네트워크(RAINN), 유류기후재단(ECF) 등

이 있다.

스콧은 "2020년 상반기를 지켜보면서 슬프고 무서웠다"면서 "각각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고민하면서 희망을 얻게 됐다"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

CNN비즈니스에 따르면 스콧은 지난해 '기빙 플레지'(Giving Pledge)에 서명해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빙 플레지는 워런 버핏과 빌·멜린다 게이츠 부부가 2010년 설립한 자선단체다.

스콧은 이혼합의금으로 베이조스가 보유하고 있던 아마존 주식의 4분의 1을 받았다. 이는 아마존 전체 지분의 4%이며 당시 기준으로 350억달러(41조8810억원) 가치였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인덱스에 따르면 현재 소셜가로 활동하고 있는 스콧의 순자산은 600억달러(71조7960억원)에 달한다. /연합뉴스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